朝鮮日報

夕刊朝刊合六面

新聞代 夕刊朝刊 一個月 [illegible] 廣告料 [illegible]
編輯兼發行人 金東成 印刷人 [illegible]
發行所 朝鮮日報社

社說

印度人의 大爭鬪 —被隸屬國民의 痛心事—

一

最近에 數片의 外電이 잇서 吾人의 注目을 끄는 者 잇스니 그는 印度人의 서로 사이에 一大爭鬪를 닐으키엇다는 報道이다 「칼커타」 三日發電은 印度敎徒와 回回敎徒의 사이에 宗敎的 感情에 因한 猛烈한 爭鬪가 잇서서 彼此에 모다 相對側의 寺院과 神像을 破壞하고 이어서 放火 掠奪等을 恣行하야 三日間에 써친 大規模의 爭鬪로써 한바 적지 안흔 死傷者를 내엇고 追後로 再發된 同暴動은 大學 工場等을 占領하고 다시 放火와 掠奪을 繼續한바 軍隊는 機關銃으로써 戒嚴하게 되엇고 暴動者側에는 前後 四五十人의 死者와 五百餘人의 負傷者를 내엇스되 雙方의 激昂은 極度에 達하야 겨우 秩序를 維持하는 形便이라 한다 爭鬪의 程度와 밋 激昂된 氣勢를 推斷할 수 잇는 바이다

二

天涯萬里 朝鮮과 자못 風馬牛 서로 미츨이 업는 印度의 一角에서 자못 大規模인 爭鬪가 잇섯기로 아모 緊切한 關係되는 바 업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陰險 또 橫暴한 帝國主義國家의 征服下에 잇는 被隸屬國民의 自體內의 分爭인 것에 돌어보아 尋常한 一事件으로 看過코자 하지 안는 바이다 面積 二百三十餘萬方里와 人口 二億九千餘萬을 算하는 大印度人으로서 歐洲人의 節制下에 들은지 三世紀半이오 英帝國의 領屬을 지은지 또한 거의 二世紀에 갓가우려 하되 아즉外지 絶大한 國民的 叛逆運動을 일의키지 못하는 것은 全혀 그들의 人種的 偏見과 宗敎的 反撥이 陰險한 征服群으로 하야금 그를 離間中傷하야 써 操縱을 自在로 하는 바에 잇는 것이니 이는 한가지로 不幸한 處地에 잇는 被隸屬國民들의 매우 留意할 點이다

三

印度 三億九千餘萬의 人民은 자못 數十種에 갓가운 異民族으로써 하되 「힌두 인도·아리안 드라비다 코라리아」 밋 蒙古人等이 그의 重要한 者이오 宗敎의 分布狀態가 또한 매우 複雜하야 印度敎徒가 二億數千萬에 達하고 回敎徒가 六千餘萬이오 基督敎徒가 三百萬을 算하며 佛敎徒가 三十萬이오 其他의 各敎徒가 다시 其間에 介在한 바 잇서서 人種의 매우 錯綜한 關係와 함께 恒常 宗敎的 軋轢이 持續되는 바 잇스니 往昔 十八世紀의 當時 佛의 「뉴프레」와 英의 「클라이브」 等이 모다 이러한 事情을 利用하야 土民兵을 操縱함으로써 그 殘忍의 毒手를 揮하든 것은 가장 分明한 前例이오 最近外지도 印度 回回兩敎徒와 밋 基督敎徒와의 사이에 軋轢은 英帝國의 統治群들로 하야금 巧妙하게 排外的 革命運動으로 大事에 니르지 못하게 하는 印度人의 國民的 團結을 짓든 바이라 이케다시 兩敎徒間의 爭鬪를 보게 된 것은 그들을 爲하야 또 世界 被隸屬國民의 解放運動을 爲하야 매우 遺憾인 者이다

(註) 「칼커타」는 印度의 事實上 首都이라 往年 英帝國이 이 「뺑갈」 地方에 澎湃하는 革命의 鋒鋩을 避하기 爲하야 멀리 北方의 古都 「델리」에 遷都한 바 잇섯스나 前者의 人口 一百數萬을 算함에 反하야 後者는 겨우 二十數萬에 不過하는 同國 第六七流의 都市로서 그 規模의 大小를 알려니와 더욱 前述한 印度革命運動의 本源을 지은 「뻥갈」의 平野를 控한 「칼커타」의 市街에서 이러한 不祥事를 突發케 한 것은 비록 남의 일임에 不拘하고 매우 嘆惜함을 禁치 아니할 바이다 往年 聖雄의 稱이 잇는 「마하트마·깐듸」가 印度敎徒와 回敎徒와의 中으로부터 勸興하야 의 融和를 形成하고서 「사차아·그라하」의 運動을 닐으키게 되니 이러한 統一的인 大運動은 足히 世界의 驚異를 닐으키고 大英帝國의 基礎로 하야곰 크게 動搖하게 하는 바 잇섯든 것이라 더욱 分爭의 洶毅을 돗게 되니 그들 先驅者들의 가슴에 넘치는 痛心을 짐작할 것이다 彼等은 歐洲의 大戰亂이란 絶大한 事變에 剩載되여 一時融合하엿고 이제 時局의 沈滯를 當하야 다시 分爭을 보게 됨이다 分爭은 弱者의 最大害惡이다

爭鬪四日에 死傷者四百餘
印度敎徒와 回敎徒大衝突

(甲谷陀電) 印度敎徒와 回敎徒와의 激烈한 大衝突의 結果 四日間에 亘하야 發生한 死傷者數는 死者 三十五名, 負傷者 四百餘名이고 軍隊가 鎭壓에 努力한 結果 騷擾는 大體 鎭靜되엿스나 아즉도 各處에서 時時로 小衝突이 잇다더라

中國의 時局과 勞農露國의 輿論
張의 北京占領을 憂慮

(모스크바電) 英吉利側消息通으로 起하얏다고 信할만한 風說이 流布되야 當地의 一般輿論은 相當히 亢奮의 色을 示하고 잇는데 右風說에 依하면 張作霖이 若 北京占領에 成功할 境遇에는 自己가 北京政府를 樹立하야 勞農大使 「카라한」氏를 卽時 追放하리라 하야 此의 計劃에 基한 行動은 英吉利와 日本이 煽動한 것이라고 傳하는데 露西亞의 輿論은 亞米利加가 此種의 行動에 援助를 與할는지 모른다 하얏다더라

訪麻하는 西飛機 쑤니쓰에 到着

(쑤니쓰電) 麻尼剌를 訪問하는 西班牙 飛行機 三臺는 六日에 아푸리카 「두케두」로부터 無事 當地에 到着하얏는데 그中 二機는 飛行을 繼續하야 「나쎄리」로 向하얏다더라

파나마租借地에 大金鑛脈
英國探險隊의 發見

(倫敦六日發) 英國探險隊는 曩者 英國이 開拓의 目的으로써 租借한 「파나마」의 租借地에서 金의 大鑛脈을 發見하얏는데 右에 關하야 關係者인 「파나마」會社 社長은 興味잇는 聲明을 하야 갈오대 同會社가 租借한 右地域은 約五千平方哩에 亘하는 것으로 租借契約에는 十個年間 開拓에 從事한 後는 租借人 同會社의 選擇하는 地域을 永久히 同會社에 讓與하기로 約束이 되얏다고 하더라

樞院議長薨去로 臨時閣議
七日午後에 開催

(東京電) 穗積樞密院議長 薨去로 因하야 若槻首相은 關西旅行의 出發을 中止하고 七日午後 臨時閣議를 開하고 此에 對한 善後處置와 밋 後任問題에 關하야 協議하엿는데 最後의 決定發表는 來十日 穗積男 葬儀終了後가 될터이며 其後任者로는 現副議長 倉富勇三郞氏이며 副議長後任은 顧問官中에서 選任하거나 또는 他方面으로 누러 適任者를 選擇할 模樣으로 平沼騏一郞, 平山成信의 兩氏가 有力하다더라

後藤子의 運動 方向이 轉換乎

(東京電) 政界革新運動을 이르킨 後藤子는 其眞意가 政治敎育에 잇고 政界에 何等의 勢力을 確立할 目的은 無하다고 稱하는데 子가 此運動을 開始하기 前에 잇서서 政友本黨과 實業同志會와의 政界更新聯盟에 對하야 物質的 援助를 與할 條件으로서 割込을 企圖한 事實이 잇다고 子의 意嚮을 承하얏다고 稱하는 交涉者는 政界更新聯盟에 對하야 相當한 援助를 하야도 조흐니 그 代에 이에 相副할만한 處地를 與하라고 暗히 子를 同聯盟의 盟主에 推하라는 意를 仄漏하얏슴으로 本黨側은 此를 拒絶한 結果 後藤子의 運動方向은 스스로 轉換되리라고 言하더라

政友本黨의 對政府態度
今後는 嚴正中立

(東京電) 若槻內閣의 改造에 際하야 憲本兩派의 關係를 如何히 할가 하는 것은 若槻首相의 가장 苦心하고 잇는 바인데 憲本兩派의 政府에 對한 關係는 議會後 漸次 變調를 呈하야 온 것이 應該치 못할 바도 政友本黨은 前議會에서 黨의 決裂을 忍하고 憲政會內閣을 支持하얏는데 이以上 政府와의 提携를 露骨히 하는 데 잇서서는 更히 脫黨者를 見할 것이 明確하며 그時에는 假令 憲本이 提携하야도 議會의 過半數를 維持하기 困難할 터인 故로 今後 對政府態度를 根本으로부터 改할 必要가 잇다고 一決하야 床次總裁는 硏究會의 某氏에 托하야 若槻首相에 對하야

一、政友本黨은 今後 對政府態度를 變更하야 嚴正中立의 立場에 歸함은 不得已한 것

一、從하야 內閣改造時에 此에 參加하야 兩黨의 責을 負함과 가튼 交涉에는 絶對로 應치 아니할 것을 通告하엿다더라

故穗積男의 葬儀

(東京電) 故穗積樞府議長의 葬儀는 十二日 靑山齋場에서 執行하기로 內定되엿스며 葬儀委員長은 阪谷芳郞男으로 決定되엿다더라

大擴張된 瑞穗合成學院
夜學을 展開하야 晝學外지도 硏究

全北沃溝郡瑞穗面馬龍里鶯山靑年會에서는 無産兒童敎育을 爲하야 勞働夜學會를 設立하고 改築에 努力한 結果 學生이 日復日 激增한 오로는 到底히 無産兒童의 向學慾을 滿足케 할 수 업다 하야 去三日에 夜學講堂에서 將來方針에 對하야 地方有志가 會同하야 協議한 結果 學制를 變更하야 一學年生은 晝學으로 하는 同時 學院名을 合成學院이라 改稱하고 左의 職員을 選擧하야 一新擴張하얏다는데 實로 地方敎育界의 曙光이라더라

院主 盧東合 院長 盧民淏 講師 盧敬淏 盧東根 盧鎭遠 許遠 員 金炳佑 盧民壽 崔昌先 蔡 相龜 盧錫準(江景)

相良校長大聲討
十三罪를 條擧하야
◇…去二日에 創立된 麗水學父兄大會에서

麗水에서는 朝鮮敎育界의 振興과 新朝鮮의 主人公이 될 우리 兒童敎育의 促進을 圖키 爲하야 去二日 該鄕校에서 學父兄大會創立總會를 開하고 經過報告 會則通過가 잇슨 後 內務, 外務, 財務의 三部 執行委員 十一人을 選擧하고 麗水敎育界에 對한 所感談에 入하야 麗水敎育界의 不善不美한 點을 各各히 罵倒하고 더욱 六人連名으로 麗水普校의 不正事件調査報告가 잇서 不正과 失態事件을 一一히 摘拔陳討하얏다 하며 決議事項에 入하야는 相良校長과 同校敎員을 徹頭徹尾하게 陳討하며 同校長과 敎員의 免職 其他 三四의 重大한 事項을 決議하는 同時 右決議事項과 要望條件을 郡當局에 陳情하기로 決議하엿다 하며 右陳討의 善後策과 關係의 交涉을 當選된 任員 十一人과 更히 交涉委員으로 增選한 五人 合 十六人의 執行委員에게 專任키로 하고 閉會하엿다더라

執行委員會 麗水學

父兄大會執行委員會는 西町洞閣에서 去三日부터 四日外지 二日間에 繼續開會하고 大會의 決議와 如히 學校當局의 罪惡 十三條를 列擧한 聲討文作成과 先後對抗策을 講究하엿는바 作成된 聲討文은 五日 學校當局과 郡當局에는 學父兄大會의 要望條件을 提出하야 正確한 回答을 九日外지로 求하엿다는데 要求의 條件은 如左하다더라

◇學父兄大會의 要求事項

一、相良校長의 退職

二、敎員 白合鉉의 免職

三、二部敎授의 復舊

四、授業料는 郡當局에서 直接 兒童保護者에게 徵收할 것

五、運動會費決算은 郡守가 直接 代理로 報告할 것

六、北里, 瀧川兩敎員의 所行을 調査하야 相當處分할 事(麗水)

第二回嶺東 記者大會
兩日間 蔚珍에서

去一日 第二回嶺東記者大會를 蔚珍郡靑年會館內에 開催하고 襄陽朝鮮日報支局 吳日泳, 襄陽東亞日報支局 張錫勳 尹世炳, 江陵東亞支局 權斗集, 江陵朝鮮日報支局 崔巖璜, 江陵時代日報支局 鄭允時, 三陟朝鮮日報支局 朴準龍, 三陟 金致化, 蔚珍時代日報支局 田炳文, 蔚珍朝鮮日報支局 田永璟 諸氏와 其外 叅德靑年聯盟執行委員 李傑笑氏外 多數傍聽者이 모혀 經過報告와 各地方狀況報告가 有한 後 閉會하고 翌日 當地 東明幼稚院內에서 繼續開會하고 各地祝電 十數通을 朗讀한 後 左와 如히 決議하얏다더라

◇決議

一、委員選擧의 件 一、規約修正의 件 一、各支局記者採用의 件 一、本社對支局의 件 一、各支局每月事業報告의 件 一、第二回全朝鮮記者大會開催促進의 件 一、本團機關紙發行計劃의 件 一、其他

◇執行委員 吳日泳 朴準龍 張錫勳 田炳文 崔巖璜

◇大會에 同情 第二回嶺東記者大會를 爲하야 郡守 金麟洙氏가 十圓 道評議員 張仁煥氏가 五圓 金融組合理事 土屋貞次氏가 五圓을 同情하얏다고(蔚珍)

農民會로 改稱
下金勞働親睦總會에서

醴泉郡龍門面下金谷洞 下金勞働親睦會에서는 去四日 同會館에서 臨時總會를 開催하고 左와 如히 決議及任員改選이 잇섯다더라(醴泉)

◇決議

一、會員整理에 關한 件 一、互相扶助에 關한 件 一、消費品에 關한 件 一、會名에 關한 件 (勞働親睦會를 農民會로 改稱하고 會務를 刷新하며 더욱 着實히 進行할 것)

◇執行委員 權斗範 權重翼 權泰福 呂奎益 權益周 李敦九 金正河 權成東 權容周 張翼翊 權昌變 權成周 (庶務部 權新漢 調査部 李昌茲) 敎養部 李鎭根 宣傳部 權昌弘(醴泉)

珍南公普 學年延長準備
各里各戶에 基金募集

全南長城郡珍原面에 在한 珍原公普校는 現今 四學年制로 卒業生이 다시 他地에 留學치 아니하면 普校全科程을 終了치 못하는 形便으로 珍原南兩面에서는 相當한 擴力으로 學年延長을 運動하엿스나 豫算上 關係로 郡當局에서 不應하야 學父兄들은 兩面民大會를 開催하고 今年度에는 普校補習科를 設置하고 議務金을 收합하야 運動한 結果 當局으로부터 兩面에서 一萬圓만 積立하면 延長을 許諾한다 함으로 兩面人士는 熱狂的으로 活動한다는바 南面長 林星圭氏와 有志 李敎榮 諸氏는 千圓式을 負擔하고 各里各戶를 訪問하야 寄附金을 募集中이라는바 南面負擔 五千圓은 未久에 完全되리라더라(長城)

郡面吏協同으로 田中包林圖謀
大救面民은 決死對抗

黃海道長淵郡大救面의 田中包林 全部를 同郡前郡守 李成鎬와 郡屬 記金成贊과 面書記 堅昌奎等이 協同하야 國有未懇地로 貸付出願하얏든바 數日前부터 郡廳에서 實地調査를 하게 되얏다는데 其中에는 數十代墳墓가 잇는 其後孫들은 憤慨하야 結果를 大계하야 가지고 調査를 妨害할 뿐 아니라 事不如意하야 貸付許可가 된다 하면 死生을 決한다 하며 크게 騷動中이라고(松川)

再次陳情 稅金直納決議
水下分面期成會에서

咸南端川郡水下分面期成會에서는 去一日 同面下農里 朴根燮氏家에서 臨時總會를 開催하고 다시 郡當局에 陳情書를 提出할 것과 本年度 春期納稅부터 곳 郡廳財務係에 直納하기를 實施할 것 等을 決議하엿다는데 稅金納付手續은 六里區長과 또 各里代表委員 一人式 合 十二人이 할터이라는데 만흔 金錢을 蠶送하기 爲하야 當地警察官駐在所에서도 巡査를 同行케 하리라더라(端川)

泗川에 新設된 邑南公普新築
萬餘圓工費로

慶南泗川郡邑南面은 千數百戶에 學齡兒童이 四五百名이나 되나 敎育機關이 無함으로 該面長 申鍵氏及有志諸氏의 旋力으로 數年前부터 普通學校期成會를 組織하고 熱誠을 다하야 努力한 結果 建築費 萬餘圓을 募集하야 當局에 陳情中이더니 近日에 此가 認可되엿슴으로 方今 普校新建築請負를 入札하는 中이라더라(三千浦)

綾岩靑年 發起

尙州郡內西面綾岩里는 戶數가 近二百餘戶에 達하나 아즉 一般農村靑年을 爲한 何等의 機關이 無함을 恒常遺憾으로 녁이든바 當地靑年 成海楠 成慶煥氏外 十餘人 發起로 綾岩靑年會를 組織코저 去五日 同里 成德煥氏家에서 同會發起總會를 開催하고 準備委員으로 成海楠君外 八氏를 選擧하얏다는데 創立總會期日은 五月十一日로 決定하얏다고(尙州)

日新學院更新

盈德郡達山面大枝洞 日新學院은 面民負擔과 自强會補助로 淺村의 經營임으로 自然 經營에도 困難할 뿐 아니라 昨年度에는 閉門의 運을 當하엿다가 同面長 金璜憲 有志 崔鉉久外 諸氏發起로서 自强會를 組織하야 學院의 資本을 補하며 또 面長 金璜憲氏 周旋으로 面住民 每戶 年八十錢 比例로 貧援하야 今春부터 開學하얏다는데 現在學生은 六十餘名이라 하며 活動하는 任員은 院長 金璜基 會計 申斗元 書記 李圭洛 李光奐(盈德)

淺野氏運動하는 仁港埋立大計劃
完成이되면 仁川은 倍나 擴大
總督도 諒解 認可는 時日問題

釜山仁川의 南大埋立事業並船渠會社를 計劃하는 淺野總一郞氏는 數日前 來京하야 目下 總督以下 各主腦者와 秘密裡에 交涉中이라는데 確實한 方面으로부터 聞한 바에 據하면 其計劃內容은 如左하다고

最初 仁川에 對하야 淺野氏 埋立을 出願하야 不得한바 認可區域은 萬石洞 小部分이엇섯스나 今回는 更히 萬石洞에 接續한 築堤及北方 月尾島末端으로부터 猫島에 亘한 一帶 四十萬坪과 其他 沙島東方에 亘한 一線의 大面積 八十萬坪 合計 百二十萬坪의 埋立事業을 計劃하야 其內 一萬噸級의 商船 五六隻을 容할만한 船渠建設의 認可를 出願하얏스며 旣히 總督과 或程度의 諒解가 成立된 바와 如하다는데 此計劃이 完成될 時는 仁川이 現市의 二倍는 擴張되리라 하며 旣히 諒解된 以上 手續에 對하야는 多少 日字를 要할지나 認可는 旣定事實인 듯한바 約四千萬圓 巨資를 投하야 直히 工事에 着手할 貌樣이나 旣히 仁川에서 同地有力者間의 埋立會社計劃도 잇슴으로 如何한 問題가 起하리라고 觀測된다더라

終始一貫하는 東明校後援熱誠

慶北盈德郡三思 私立東明學院은 創立以來 五個年間 當地人士들은 學校組合과 後援會를 組織하야 同學院維持에 盡力하야 옴은 一般의 아는 바이어니와 今般 또 備品이 不備함을 遺憾히 녁여 多數한 金品을 寄贈하얏다더라(淸河)

馬山勸組 解散期는 七月
解散後에는 大規模의 金融機關을 建設

馬山魚市場勸業貯蓄組合에서는 本月四日 任員會를 開催하고 來七月은 本組合의 滿期임으로 此에 對한 解散 又는 伸張問題로 長時間 討議한 結果 組合의 規約에 依하야 來七月에는 解散하기로 하고 이어서 大規模의 金融機關을 建設하야 우리 一般實業界의 金融을 圓滑케 하기로 하고 其他를 如左히 對議하엿다더라

◇決議

一、組合滿期解散에 關한 件 一、四月十一日에 臨時總會開催件(馬山)

蓄妾病!

啄木鳥 投稿歡迎 十四字 五十行以內 作者氏名明記

◇우리 晉州에는 벌서부터 靑年들 사이에 蓄妾病이 流行하기 始作하야 只今에는 자못 蔓延되야 가는 現象이다 그래서 以前에 가장 健實한 靑年이라고 하든 사람들도 自然 이에 感染되여 가는 傾向이 잇다 이것이 엇지 그들 自身을 爲하야 또는 一般의 社會를 爲하야 紛慨할 일이 아니겟느냐 ◇엇재서 同胞들은 飢寒에서 달려 모다 죽어가는 形便인데 每月 數十圓의 俸給으로 因하야 自己의 生活만이 比較的 安閑하다는 생각으로 蓄妾을 하는 것은 오로지 自己의 享樂을 爲하는 것 外에 무엇에 比할바이 업다 ◇蓄妾은 奢侈다 아니 蓄妾은 罪惡이다 人間의 一大罪惡이다 ◇蓄妾에 돌리는 돈이 잇거든 社會를 爲하야 쓰라 ◇諸君아! 어서 反省하라! 그리고 참다운 사람이 되야라! 이것이 우리의 바라는 바이다(晉州)

醴泉民運懇談 畢竟禁止
會衆은 鬱憤

旣報=去五日에 開催하려든 醴泉五五會主催의 郡內民衆運動者懇親會는 醴泉警察署로부터 下里小作爭議事件을 第二回로 調査에 着手하야 事務가 複雜할 뿐 아니라 其他 여러가지 形便으로 今番은 禁止한다 함으로 當日 午前中에 雲集하얏던 運動者 諸氏는 이 消息을 듯고 爲無이라 하며 鬱憤히 解散하얏다더라

各面에 支會設立

尙州勞働靑年會는 昨年冬期에 金鑑 朴哲等 諸氏의 發議로 創立된바 그동안 一般會員의 極力活動으로 會員이 八十餘名에 達하며 事業도 日益擴大함을 따라 各洞里마다 支會를 設立하야 一層 더 活動하기로 하고 各委員들은 支會設立에 分忙中이라 하며 來九日은 洛陽里에서 勞働靑年會洛陽支會를 創立할 터이라더라(尙州)

新設講習盛況
鐵原乃文面 學生이 八十餘名

鐵原郡乃文面에는 아즉 相當한 敎育機關이 업슴을 遺憾히 하야 同面長 以下 各區長 勞力으로 同面倉洞里에 講習所를 設하고 去月二十八日부터 開學하얏다는데 同敎員 李學洙氏의 熱誠敎授로 學生이 八十餘名에 達하얏다더라(鐵原)

間島少年總會

◇間島日曜少年會 間島志仁社碧水谷에 居住하는 少年으로 組織된 日曜少年會에서는 昨年四月創立以來 諸般幹部活動으로 相當한 成績을 보이더니 去一日 第四總會에서는 任員을 改選하고 左記를 決議하얏다고

一、少年雜誌十種以上을 購讀할 것 一、少年用樂器를 注文할 것 一、少年斥候演習을 實行할 것(石建)

間島映寫團來靈

南鏁武市에는 去四月六日에 北間島에서 우리의 施設로 가장 오랜 歷史를 가진 私立明東學校가 昨年早災로 因하야 廢門케 되얏슴으로 此를 復興키 爲하야 同校後援會에서 委員을 故國에 巡廻케 한바 各地를 巡廻하야 故國同胞의 만흔 同情下에 無事히 鏁武市에 到着되엿는바 鏁武靑年會 時代 本報兩社支局後援으로 映寫를 準備中이라는데 實로 우리 五十萬同胞가 現在居住하는 間島 六十餘年間 悲風慘雨의 事實과 過去數千年間 우리 先祖의 活躍等을 一一히 紹介하리라더라(鏁武)

公普問題 兩里起爭
安邊瑞谷에서

咸南安邊郡瑞谷面 一二里人民들은 公立學校位置로 孫烈한 分爭이 起하야 郡面當局은 兩里中央地에 決定하라는데 其內容은 二里에서는 私立瑞明學校를 創設할 時 面長의 말이 新制度로 하면 將來 公立되기는 無慮하다 함으로 八千圓으로 校舍를 建築하고 四千圓은 積立한 後 學生 一百五十人을 敎授하얏스며 一里에서는 舊私立瑞興學校舍를 城隔에 新式으로 移築하면 公立으로 陞格한다고 郡守가 預言함에 依하야 三千三百餘圓을 蒐集하야 前年에 校舍를 建築하고 九千圓은 積立하야 學生 百餘名을 敎育하야 오던바 今年度 公立普校를 瑞谷面에 設置됨을 따라 兩里分爭이 起함이라더라(安邊)

間島實狀映畫
北靑에서 大盛況

北間島明東學校後援會主催 故國巡廻間島實狀映寫團은 去三日 北靑에 到着하야 六個團體後援으로 北靑靑年會館에서 間島實狀映寫會를 開催하야 多大한 歡迎을 博하얏다고(北靑)

三星靑年會制變更

永興郡鎭坪面鎭岩里 三星靑年會에서는 去一日 臨時議長 趙鍾敎君의 司會로 第七回臨時總會를 開하고 左記各事項을 決定하얏다고

◇決議

一、從來의 會長制를 委員制로 할 事

一、面靑年聯盟에 代表를 派送하되 金淳彦 趙鍾敎 黃光烈 朱官富 陳昇烈 五人으로 定할 일

一、會館建築의 關한 件

◇委員 金淳彦 趙鍾敎 朱官富 黃光烈 朱官述 陳昇烈 黃啓一

▲常務委員 朱雲富 敎養部 黃光烈 庶務部 趙鍾敎 陳昇烈 運動部 朱官述 委員長 金淳彦(鎭興)

普明講習의 維持共誓
泗川南陽面 有志會에서

慶南泗川郡南陽面普明講習會는 種種曲折로 校門을 閉하고 學生을 解散할 境遇에 至하엿다 함은 旣報한 바어니와 去三月二十日 同會第三回卒業式場에서 主設者及來賓諸氏가 同講習存廢에 對하야 痛切한 演說이 잇섯든바 會衆은 卽席에 一體로 同講習會의 後援을 誓約하고 同面長 李承徵 同講習會의 設立者 一人인 李敏鎬 兩氏의 發起로 또 去三月三十日 面內有志諸家를 本面事務所에 會集하야 許多한 討論과 說明이 잇슨 後 左記諸項을 誓約하고 任員을 選定하얏다더라

◇誓約事項

一、本面講習會를 爲하야 各里排定金을 卽速收合할 事

二、本面普通學校期成會金 第一回未納條를 卽速收合할 事

三、面內靑年의 事業進行에 盡力後援할 事

四、面內產業 其他 諸般의 施設에 齊力進行할 事

◇實行委員 朴琮實 李承徵 李敏鎬 鄭益錫 張台範(三千浦)

萬城消組創立

平南安州郡龍花面雲川에서는 有志諸氏의 發起로 去一月 雲川一帶를 區域으로 하야 消費組合을 組織하고 創立總會를 開催하엿다는데 그의 目的은 食鹽, 石油, 燐寸等 消費品을 低價로 購入供給하야 消費를 節約케 함이라더라(萬城)

鎭興金組 一年間純益이 三千五百餘圓

어더케 努力하면 이러한고?

永興郡鎭興場에 잇는 鎭興金融組合은 大正四年度에 創設된바 元來 區域이 偏少함을 따라 組合員이 少數이고 兼하야 郡所在地가 아님으로 貯金이 極少하야 借入金으로 貸付함에 따라 利益이 別無함으로 至于今 本道內 三十個의 組合中 成績이 末位에 在하던바 大正十四年度에는 實로 意外의 好成績으로 利益이 約六千四百圓에 達하얏슴으로 以前의 貸付金決損處分된 約二千五百餘圓을 除하고도 純利益이 三千九百圓이라는바 右組合을 設立以來 組合의 發展을 得함은 理事 千葉鶴藏氏와 書記 鄭正元氏外 兩人의 晝夜盡心努力한 結果라고(鎭興)

參禮衡平分社創立

去五日 全州郡參禮面參禮里 吉德奉氏家에서 衡平靑年全北聯盟會 巡廻委員 會金章氏 司會로 參禮衡平分社創立總會를 開催하고 左記諸行을 決定하얏다더라

◇決議

一、差別待遇에 對하야는 積極的으로 親切을 主로 하되 萬一 個體나 又는 大衆에 侮辱이 及할 時는 卽時 本社에 報告하야 對策을 講究할 것

一、敎養에 對하야는 夜學部를 設置하고 又는 新聞雜誌等을 購覽할 것

一、經費에 對하야는 社員中에서 牛一頭 屠殺에 五十錢 豚一頭에 二十錢式 徵收하야 社費에 充用할 것

◇任員

社長 趙福厚 總務 李鍾夏 財務 李福厚 書記 李完金 和判石 幹事 趙仁叔外 二人이라더라(參禮)

龜尾講演禁止

旣報 京釜線龜尾靑年會主催로 去三日 講演會를 開催코저 하엿던바 屆出을 아니할 뿐 아니라 大衆을 集合함은 不穩하다는 理由로 警察當局에서 集會를 禁止하야 講演會는 禁止되고 말앗다고(龜尾)

◇仁川野犬撲殺

仁川警察署에서는 四月十二日부터 仁川市內及富川郡多朱面管轄一帶에 野犬撲殺을 施行하리라고 發表하엿섯다는데 撲殺方法은 指定한 犬聚가 업는 것은 엇던 것을 勿論하고 捕殺하리라더라(仁川)

課農獎學會
事業益益發展

盈德郡蒼水面仁川洞 有志 李讓浩, 李泰鎬, 金奭東, 李浩淑 諸氏 發起로 大正十年春에 課農獎學會를 設立한바 每日朝夕으로 飯米二匙式 貯蓄하야 至今은 巨大한 資本을 일우엇다는데 農村啓發과 一般敎育의 目的하며 貧民救濟, 實業商業의 資本도 無利息으로 貸與한다는바 前途에 만흔 希望이 잇겟다 하며 現務하는 任員은 如左하다더라 會長 李讓浩 副會長 朴周馨 總務 朴河洛 理事 李泰鎬 書記 金奭東 申東洛 諸氏더라(盈德)

濟州婦人見學好果

濟州婦人會와 女子靑年會合同主催와 濟州記者團의 後援으로 濟州婦人見學團을 組織한다 함은 旣報한 바어니와 豫定과 가티 去三月二十六日 團員一同은 合同會館에 集合하야 記者團代表의 引導로 郵便局, 道立醫院, 農業學校, 測候所, 電氣會社等 數十箇所를 見學하고 同六時에 臨時解散하엿다가 更히 同夜 同時에 無線電信局을 見學하고 無事히 解散하엿는데 團員은 七十名이엿스며 期待한 바와 如히 만흔 效益이 잇섯다더라(濟州)

地方經濟

元山釀造 一年生産百萬圓

元山府內의 釀造業은 最近 非常히 發達되여 朝鮮燒酒 一千七百石 日本酒 三千五百石 麯子 八千石 醬油 一千九百石 味噌 一萬三千貫 此等의 總價格은 今에 百萬圓에 達하라 하야 元山府內生産中 重要한 位置를 占하며 더욱이 當業者들의 此에 對한 硏究와 努力에 依하야 際價를 得하게 되엿다는바 今에 釀造及稅納은 左와 갓다더라

酒造年度	燒酒	淸酒
十年	一三二〇	一九三〇
十一年	一一〇〇	二四三〇
十二年	一二四〇	二七三三
十三年	一六四〇	二七五四
十四年	一七〇〇	三五〇〇

元山三月貿易 百二萬餘圓

元山港三月中貿易은 輸出 三萬二千百三十二圓 移出 九十九萬八千三百三十五圓 合計 一百三萬四百六十七圓 輸入 二十四萬九千八百二十三圓 移入 五十九萬九千一百二十八圓 合計 八十四萬八千九百五十一圓인데 出入兩者의 權衡은 差引 十八萬一千五百十六圓의 出超이라더라(元山)

遠達面長後任問題

長淵郡遠達面長 崔衛浹氏 死亡後 新任面長選定에 對하야 一般面民의 輿論은 紛紛하다는데 其內容인즉 遠達面은 田地가 肥沃하고 舟輯의 交通이 便宜하야 海西의 屈指하는 市場이 有함으로 發展의 可能性이 多하나 今日外지 面長의 相當한 資格者를 得치 못하야 遠達面은 發展上 아모 施設이 업고 改善에도 아모 實績이 업섯슴으로 今番에는 郡當局에서 慎重히 考慮하야 相當한 資格者로 選拔하기를 渴望한다더라(長淵)

三千浦魚物賣買高

慶南三千浦는 南鮮一帶 有名한 漁業港으로 去年十月一日부터 今年三月末日外지 渡來한 漁船이 九百九十六隻에 放賣된 總額이 九萬五千三百六十九圓十錢인바 仲買人放賣報高額은 崔琪永 二萬五千四百七十六圓三十五錢이오 文正淑 二萬三千三百三十四圓二十錢이라더라(三千浦)

馬山魚物市場

近日 馬山魚市場에서는 浦項靑魚(鯖魚)의 賣買가 中心되여 一日 數十回이나 取引되는 現象인바 그 價格은 例年에 比하면 約四割假量이나 廉價될 뿐 아니라 不遠間 海蔘威靑魚가 來着될 豫定임으로 一般仲商人側에서는 적지 안흔 恐怖中에 잇다 하며 去四日 現在 重要物時價는 下記와 갓더라

▲浦項靑魚 上每同 五十四圓以下 中每同 三十八圓以下 下每同 二十八圓以下

▲浦項增大口 上每尾 三十錢以下 下每尾 二十七錢以下

▲明太 上每個(三十級) 三十七圓 中每個(三十級) 三十五圓 下每個(三十級) 三十圓以下

▲白文魚 上每東(十尾) 七圓 中每東 五圓以下 下每東 三圓以下

▲皮文魚 上每東 一圓四十五錢 中每東 一圓二十錢以下

◇南氏歡迎宴

全北錦山郡內에 在한 錦山靑年會主催로 去三日 錦山靑年會館內에서 今春에 東京에서 學業을 마치고 歸鄕한 南氏의 歡迎宴을 開하얏는데 同志者가 多數 集合하야 盛大히 歡迎하얏다고(錦山)

◇濟州靑年委員會 濟州靑年會에서는 去一日 同會館內에서 委員會를 開催하고 左記事項을 討議決定하얏다고

◇討議

一、定期總會開催의 件 一、豫算編成의 件 一、故劉成伯君葬儀式에 關한 件 一、合同會館에 關한 件 一、濟州公衆集會所建設期成會援助에 關한 件

◇長水漁業總會 長水郡漁業組合에서는 三月三十一日 漁業總會를 盛大히 開催하얏는데 一二等賞은 牛一頭 其他는 等級에 依하야 農具로 賞을 與하얏는데 受賞面은 長水面 溪南面 磻岩面 山西面이라고(長水)

◇義州포로同志會 義州에서는 去五日 當地時代日報分局에서 第二回定期總會를 開催하고 左記事項을 決議하얏다고 한다

◇決議

一、組織問題에 關한 件 一、敎養問題에 關한 件 一、會員問題에 關한 件 一、日人資本主가 少年勞働에 關한 件 一、當地土木局堤防工事의 工夫負傷에 關한 件(義州)

▲劉成伯氏逝去 濟州靑年會常務執行委員 劉成伯氏는 身病으로 靜養中이더니 去三月三十一日 上午八時에 自宅 濟州島濟州面三徒里에서 二十七歲의 芳年으로 一期를 告終하얏다는데 氏는 일즉이 故鄕에서 初等敎育을 畢하고 東京에 건너가서 數個星霜 동안 만흔 苦楚를 격거가며 法政大學에서 螢雪의 功을 積하다가 昨夏에 偶然한 病으로 歸鄕하엿던바 無限한 前程에 抱負를 未展하얏다고 遠近이 哀悼한다고(濟州)

地方人事

▲李從直氏(東京留學生學友會編輯部委員)는 學之光社任務를 帶하고 釜山地方을 經하야 大邱에 滯在中(大邱)

▲明容駿氏(江景養英學院學監)는 今般 辭職하고 五日 寧邊鄕第에 出發

◇寸鐵◇

【江景】 電燈値下問題는 有志調停도 失敗를 하고 第二次交涉을 할 터인데 消燈實行委員會는 消燈키로 決定하얏다고 엇잿든 電燈은 꽉 막엽 막하는구나

◇

【木浦】 南橋洞某地主는 日本人보다 甚하다고 한다 地主야 一般이겟지마는 日本人보다 甚하다는 말을 한다 이것은 同族임을 是認하는 말이다 고마운 줄이나 알어라

◇

【价川】 五十老婆가 二十靑年과 逃走한 일이 잇다 七十老人이 少妾을 두는 格이겟지

The Korea Daily News.

Seoul, Korea, Thursday, Apr. 8th, 1926.

WHY I WENT ON THE STAGE
By Sir John Martin Harvey

III

My first real school was Linton House, Colchester, and my education was planned by my father on the presumption that I should follow him in his profession as a naval architect. So after leaving Linton House I went to King's College, where I am afraid my history was much the same as at school. The only prizes I can remember securing were for drawing.

My last year at college was devoted to higher mathematics in view of my prospective studies in naval architecture. But it was no use; I could not absorb mathematics, and my master looked on me with pity as an utter dunderhead, and casually told one of my friends I had no brains at all.

Still, a healthy schoolboy of fifteen is not easily depressed. This made my father revise his programme, and I did not go to the School of Naval Architecture, but was apprenticed to the firm to gain practical experience. I started in the designing-room, and from there I had to go into yards, see the various departments at work, and then go on to the draftsmen's offices. May I confess that I often retired to my particular room and translated Fenelon's Telemaque?

英文欄

余의俳優生活 (하비) (三)

王殿下의患候
七日午後御容態
데온이조금놉흐시나 아츰보다나으시다고
◇午後五時 李王職發表

왕뎐하환후에대한칠일오후다섯시 리왕직발표에의하면 칠일오후부터는 다소차효가게서서 일반시관들과 밋종친 구신들까지 매우깃븐빗을뛰워 시립하야 잇섯다는데 오후네시에 촌상(村上)병원장, 암뎐(岩淵)박사, 성뎐(成田)박사, 안상호(安商浩)씨등이 배진한결과 어용태는아래게다옴과가트시다더라

御脈搏 一二三度
御體溫 三七度一〇分
御呼吸 二二度
御尿量 午前보다減少

이상과가튼신어용태중데온이뎜뎜놉하가심에 대하야 배진한시의들의 말을들으면 작일부터긔관지염(氣管支炎)을병발하시는듯하야 하정에 거익이념려하얏섯스나 어라딩(疼咳)기타에 의지하면 별로이상이 업스심으로 필경 부종이차차 내리심을따라 옥톄의 동작이다소제심으로 이에말미암으신듯하다는바 다시 나면(內殿)측으로부터 승문하는바에의하면어태온니놉흐신관계로 긔관지염이 병발되시는듯하다는데 진어하시는바가 겨우 육즙류(肉汁類)약배『그람』에 불과하신고로 시의들도 아즉확실히 진뎡(診定)은 못하나 매우황송한중에잇다더라

世子妃殿下 其後容態
대단치는안흐시다

일본하관산양(山陽)호텔에서정양중에게신리왕세자비뎐하의그후의 어용태는 그리대단치는안흐신모양이며출식사는『숩』과 생선과 소고기등을 잡수섯스며 또구주대학(九大)의구보(久保)박사는 칠일오후 두시오십분에 문사(門司)를떠나하관에도착하야어진찰을하엿다더라

久保博士發表한 세자비뎐하어용태

왕세자비 뎐하의 어용태를배진한구보(久保)박사는칠일오후네시에다음과가티발표하엿더라 비뎐하의 감긔로인하야 발생된단순성편도선염(單純性扁桃腺炎)은어데온삼십팔도팔분어맥박은팔십사로저녁식사는보통양식에다가『아이스크림』등을잡수섯다

또 오후 네시사십분의 어용태에 대하야 어향해중의 세자뎐하께서 무선뎐신으로 보고가왓는데 역시하변하실만한 어용태는 아니라하나 당뎔의 어출발은어려우실모양임으로 구보박사는 칠일에동호텔에 투숙하야 시종하기로되엿다더라

猶豫未決되는 江景의電料問題
오일간소등실행을중지하고 유지의묘뎡이잇섯스나무효

두보한바 강경뎐등료금 인하문데는 유지들의묘뎡으로 소동실행을오일동안중지하고교섭을다시진행하얏스나 여전히 회사측에서는 고려중에잇다하며 료금치하를성명치아니하고중역회도 아즉은열지아니하며 오즉시민의 의사는 존중히본다하는 요뎡이매우애매한당국자의말로결국해결을 하지못하야 묘뎡하는유지들은다시적극뎍으로 시민을 위하야운동을하여보기로하고강경경찰서에서 지난오일오후 두시부터실행의원들과 회집하야 교섭한결말을공개한후에데이차로 묘뎡에 노력할터이니오일간 소등실행을 중지한 그대로전등을하고잇서달라고부탁을한후에극력으로 묘뎡하깃슴을 말하얏다더라

消燈決定
실행위원회에서 협의결과로결뎡

묘뎡하는유지들과경찰서에서회견을하고돌아온실행위원칠명은 당디서뎡고도옥(西町高島屋)이층에서소등실행여부를결뎡하고거쳐의회를오후오시부터개최하고소등실행하기로일치가결한후 폐회하엿다는데 그소동의리유는 우리의경제생활상 도저히 현재뎐등료가튼 비싼료금은 지불할능력이업슴으로 뎐등을켜고는살수업다는것이라더라(강경)

非難을밧든 龍江面長辭職
오일에사직발표

작년수재이후로 이어서 회계원 김모(會計員金某)의 공금횡령문뎨가 만히 비난에싸혓든 시외고양군룡강면장(市外高陽郡龍江面長)임긍순(任肯淳)씨는 수삼일전에군당국(郡當局)에사직원서(辭職願書)를데출하엿든바 지난오일에 정식(正式)으로 사령서가 뎐달되여 그이튼날부터 그면수석서긔(首席書記)서광정(徐光政)씨도 림시면장 사무를 보게되엿스며 후임면장은 방금 군당국에서 뎐형중이라더라(고양)

順天小作四十名 不耕同盟을決定
무리하게이작을하얏다고

전남순텬군해룡면해창리(全南順天郡海龍面海倉里)소작인 사십여명은 벌교포중도진삼랑(筏橋浦中島辰三郞)의토디 삼백여두락에대하야불경동맹(不耕同盟)을하기로결뎡하엿다는데그내용을들은즉동중도라는디주는 작년소작료도뎡할시귀를당하야 농작물은 수재풍재(水災風災)로인하야 감손이만흠을 불구하고 소작료를너무나 람집하엿슴으로 결국소작료불납동맹(小作料不納同盟)까지이르러 소작료는 전수확의사할(四割)만 주엇더니 금년에와서는 일백오십여두락의토디를 동면선학리 조산곡(仙鶴里曹山谷)외이십일인에게 소작권이동(移動)을 행하는동시에 구소작인에게대하야 소작권해제통지(解除通知)를보내엿슴으로 몽소작인 사십여명은 지규히회의를열고 소작권을회복하야주지아니하면중도의토디 삼백여두락에 대하야는 절사뎍행동으로 불경동맹을 단행하기로되얏다는데 이문데는 매우주목할문데라더라(순텬)

洪氏起訴猶豫
지난오일에출옥

[대구]‖대구부명치뎡(大邱明治町) 홍광(洪光)씨는얼마전에 출판법위반(出版法違反)으로대구서에서 취됴를마치고 지나간사일대구디방법원(大邱地方法院)검사국에송치하얏다 함은 긔보한바어니와 지난오일에 긔소유예(起訴猶豫)로출옥하얏다더라(대구)

醴泉爭議事件 漸次擴大?
삼씨를또검거

경북례천군 하리면(慶北醴泉郡下里面) 소작쟁의(小作爭議)사건으로 안동지텽검사(安東支廳檢事)까지출장하야 은풍소작인회(殷豊小作人會)의 간부리용만(李用萬)씨를 비롯하야 여덜사람을 검거하야 지난삼십일에모다 안동지텽으로 넘어갓다 함은이미보도한바어니와 이케 그사건은 더욱확대하야지는 모양인지 례천경찰서에서는 그사건에대한 데이회묘사에 착수하엿다는말이잇더니 과연 지난오일에는당디오오회원(五五會員) 황병운(黃炳雲)씨와 신흥청년회원 장병억(張秉億)황병뎌(黃秉轍) 제씨를 당디경찰서에구금하고 취됴를하는동시에 여러방면으로 더욱묘사에 렬중하는바 일반은크게 주목하고잇는중이라더라(례천)

失戀으로飮毒
생명은구조되얏다

호남선리리(裡里)일출뎡(日出町)에잇는 고동리발관(理髮館)직공본적충남부여군홍산면좌홍리(忠南扶餘郡鴻山面座鴻里)김련호(金護浩)(三)는지난사월에 동리발관숙소에서쥐잡는약을호떡속에 너허먹고 죽으라하는것을 리발관주인이 발견하고동디동광의원(同光醫院)의사에게응급처료를바더 다행히 생명에는 관계가 업다는데 이제원인을드러보면 수월전부터 전주(全州)출생인김금주(金金珠)(二)와가티살기를 약속하고당디옥남(沃南)려관에투숙케하고 자긔는전긔고동리발관에 직공으로 잇스면서 겨우겨우생활을 보장하든바 전긔 김금주는 엇떠한사정이잇든지 근일에와서 가티살지아니하겟다함으로 분함을 참지못하야그와가튼참혹한일을한것이라더라(리리)

東幕下里에 頻頻한怪火
한동리세집에서 원인몰을불이나

륙일밤 열한시반쯤되여 시외동막하리(市外東幕下里)륙백륙십이번디 전성관(全成官)의 집에서 불이붓는것을 지나가든이웃사람이 발견하고 동리사람들을 출동시키여 진화에노력하야 이를곳진화하엿는데 그집에서 두엇재집되는 륙칠륙번디 류문환(劉文煥)의집내서 돌연히 불이 또 부름으로 다시진화에 노력하든중 또 몃재집되지 안는 칠일칠번디주석현(周奭鉉)의집에서또 불이부름으로 군중은 더욱노력하야 겨우진화는 되얏스나 발화원인은 괴화인지 엇던자의방화인지 매우 의심스럽다는데 일시는 큰소동과혼잡을일우엇스며 만일을 념려하야 그이웃사람과 동동구락부원(東工俱樂部員)들은 밤을새엿다는데 소관동산서에서는 발화원인을엄중묘사중이라더라(고양)

平北에서軍資募集
일부대는군긔를주문

참의부훈사위원(參議府訓使委員) 김선풍(金旋風)리관식(李寬植)량인은 부하삼십칠명을다리고 조선내디에드러와서 평북자성(平北慈城)후창(厚昌)강계(江界)위원(渭原)초산(楚山)벽동(碧潼)방면으로다니며군자금모집과 작년중에 약속하엿든군자금을 령수하기로 내뎡되엿다하며 또한동참의부 중앙총본부 참모(參謀)김용대(金容大)정참모(鄭昌談)외수인은 각각 부하십팔명식을 다리고 평남(平南)방면으로 출발할작뎡으로 방금 무송현탕해(撫松縣湯海)에잇는 교통부(交通部)에 무긔를 주문중인바 무긔가도착되는날로 곳 출발하리라하며 본영일중대(本營一中隊)소속인 특별유사(別士)박영준(朴永俊)리익순(李益順)외십팔명도 내디로출발하려고 지금집안현소청구(輯安縣小靑溝)에모여서 상부(上部)에서 명령나리기를 기다리고잇다하며 그외에도 각디에잇는무장단들은 서도히금년도에 작전계획(作戰計劃)을의론하는중이라더라(신의주)

咸興印工盟罷 職工四名檢束
경찰간섭의결과

함흥 인쇄공맹파사건(咸興印工盟罷事件)이날이갈사록 더욱격심하다함은 두보한바어니와 함남신문사(咸南新聞社)에서새로모집하여온 직공열한사람의 행동에대하야 크게분개한 직공들은 지난사일오후 여덜시경에 맹파원칠십여명이전긔신문사에와서 도하야 신직공들을 징계하는동시에무수히 구타까지한 일이잇섯다는데 그뒤를이여 경찰당국으로부터 직공네사람을 검속하엿슴으로 고주대직공간의 경계뎍루쟁임에도 불구하고 함흥경찰

戀人殺害한 勞働青年公判
대판공소원에서

로동운동(勞働運動)의 열렬한 투사이엇든 경도부무학(京都府舞鶴)사는 어선구길(御船久吉)(二九)이 작년구월 이십구일에 련인(戀人)인 동뎡신디(新地)에사는 예기(藝妓)고뎐가쓰(高田カツ)(三)의포옹과 『키쓰』를 바드며 유명한영국(英國)시인 「부라우닝」의 영시일뎔에 맘할수업시 무한한감격을 바더서 그아름다운순간을 영원이잇지안으려고 사랑하는 애인을 「넥타이」니로 교살한사건은 지난이월십칠일에 살인죄로 징역팔년의판결을밧고 공소하야 륙일대판공소원(大阪控訴院)에서공판니열리엿섯는데 붉은옷을입은 구길은 침착한어됴로 자신에대한말 련애에대한말 로동운동에 대한말과 홍앙올한사적던밤을 일일히말하매 방텽인는 소리한마듸업시 고요하얏다는데 서로의가합하야 정사를하라하얏는지 혹은 무리하게죽이엿는지가 이사건의분기뎜이라더라(대판뎐)

職業爭奪셔데 棍棒으로毆打致傷
파업로동자와싸홈에 일본인이곤봉으로란타해
負傷者四五名中一名危篤

지난삼십일오전여덜시경에청진동운선계조원(淸津運船契組員)일동은 일본인조두(日本人組頭)와 품삭싸닭에 불평이생기여서동맹파업을 하엿다는데 여전히 그조합십장으로잇든 엄억보라하는자는 로동자를 모집하야 그로동을하고자함으로동맹파업하엿든 로동자와 싸홈이생기게되얏는데 이것을본 일인들은 곤봉(棍棒)을들어 함부로 란타하야 조선인로동자 삼사명이 중상되고 일본인 중상자가 한명이라는데 이일을 알은경찰당국에서는 쌍방 의피해자와선동자를 목하묘사중이라는바조선로동자한명은 대단히 위독하다더라(청진)

大邱女子見學 第一日은왓다
한표가진단원은 구시반도뎡압헤

[대구]‖본보대구지국(大邱支局)주최로 따뜻한 첫봄을마지하면서 대구시내에잇는 중요한여러곳을 견학하기위하야 부인견학단을 모집한다함은 두보한바어니와 첫날인 팔일에는 한표(白票)가진이의 견학할날이바 시간은 오전아홉시삼십분내로 도텽(道廳)안으로 모혀서 그곳을 비롯하야 견학할터인데 단톄의 일임으로 뎡각에오지못하면 유감이나마 거절하겟슴으로 될수잇는대로는 시간을 준수함이조켓스며 특히당일에 주의할것은 여러가지의 물건을가지지 말것과 어린아이를다리고 오지말것이며 또한주소씨명과 련령을써가지고올것과 당일 뎜심(點心)은 배수지(配水池)에서 할터인바 가지고오기에 불편하면미리 배수지에 갓다두는것이 편의하겟스며 미청년자는 여러가지관계상불허하겟더라(대구)

列車投石犯
십사세소아의작란

사리원(沙里院)에서평양(平壤)을향하는 오후세시팔분렬차에는 지난사일오후세시 삼십오분에 계동(桂東)을지날때에 엇더한자가 돌을던저서 승객들이크게 놀라엇섯다는데 그자세한말을듯건대 봉산군만천면만금리(鳳山郡萬泉面萬金里) 리돈근(李敦根)의아들진헌(鎭憲)(一四)이라는아이가 송림(松林)에서 나무를하야가지고집으로가려하는차에긔차(汽車)가지나가는데삼뎡쯤되는거리에서돌을던진것이라하며그아이는사리원경찰서(沙里院警察署)에 인치취됴중이라더라(사리원)

逃走한看守와殺人犯 端緖를發見搜索
문천에강도가생긴결과 그들의소위인듯하다고

상해 정부원으로서 강도살인범인이란 엄태섭(嚴泰燮)과 원산형무소의 간수황종률(黃鍾律)이 두사람이 손을잡고 원산형무소를버서난지 금일까지 이십여일을경과하얏스나두사람의행방은 아주 묘연하게되야 검사국이나 경찰당국이나 다 톄포의희망이 업다하야락망하고잇든중에지난 삼일밤 문천군운림면금동리(文川郡雲林面金東里)엇던집에 강도두명이들어와서주인을협박하고 의복두벌과 식료품등을 강탈하야가지고갓다는정보를접한 문천경찰서(文川署)의 사법계주임과 형사두명이 현장에출장검사하야본말에의하면범인의인상이엄태섭과 황종률과 류사한것이잇는데다가 겸하야 의복과 식료품을 강탈도주한것을보면 원서에서는 서원의 행위갓다하야 문행하야 범인수색에 착수함과동시에 연선각경찰서에 범인수색을의뢰하엿스나 아직범인은검거하지못하엿다더라(원산)

少女가斷指
부친을살리고자

경북의성군 소문면명덕동 김재화(慶北義城郡召文面明德洞金在和)의넷재딸 두리(斗里)(六)라하는 소녀는 금년군위공보녀자사학년(軍威公普女子四學年)일호청컨으로 이번존귀 휴가에집에 도라왓다가 뜻밧게그아버지가 중한병으로누어서 지난삼월이십오일에 세상을 떠나게되매림종시에그하생은홀혼련손부명지를 니로물어서 붉은피를부친의입에너허서약삼십분간목숨을느렷스나 결국낫원히 오지못할길로떠나게되엿다는데 김두리는아죽도 아버지를부르고 우는정상은리웃사람으로하야금그효성을칭찬치안흘수업다더라(의성)

鴨綠江對岸 武裝團의計劃
서로련락을취하야가지고 일부대는내디에와서활동

압록강대안(鴨綠江對岸)에잇는 무장단들이 봄이된이후부터더 활동을 개시하엿다함은 본보에 누차보도한바어니와이케모처에서 온정보라는것을 들으면만주(滿洲) 각디에 널려잇는무장단의 태반은 길림(吉林)등디로 이뎐(移轉)을하는동시에 남은태반은조선내에드러와서군자금도 모집할겸 선뎐하기위하야 불일간출발하리라는데 위선 그준비로 참의부 소대장 허운긔(許雲起)는부하 팔명을 다리고 지난음력이월팔일에 출발하야 림강현(臨江縣)이남 관뎐(寬甸)사이에잇는십여곳에도강용목선(渡江用木船)을준비식히며 또한국경(國境)방면에 잇는 일본경찰의경계형편(警戒形便)을묘사하라고 부하들에게 명하엿다더라

媤母의虐待로 팔려가는一女性
일백칠십원돈을바더먹고 며느리를파러버린시어미

김흔 양덕(陽德)의산골까지따뜻한봄철의해가비최이든지난달이십삼일오정뼈이엿다 양덕군온천면상청리(溫泉面上淸里)엇던수간모옥에서 청춘남녀의 애꾼는우름소래가나자 이웃집 부녀수십명이 모여들어서 동정의눈물을흘리며 그동리가일시는 우름판이되엿는데 우름의 리면에는 애꾼는사실과이가포악(暴惡)이 더업시나타나잇다 애화의주인공인박순렬(朴順烈)(二三)이라는녀자는 팔년부터 리상항(李尙恒)(二三)이라는 청년과결혼하야 집안은 빈한하나 무한히의가조와서

가진고초 틈다겨그면서

도부부의 화목을유일의 락으로 삼어가며 딸뚝데까지 나엇스나 세상에만흔 시모의 며느리허대로리상항의모친리성녀(李姓女)(六)는 아들의부부가 의조흔것을공연히 시긔하며 박순렬을학대하야 거의하로건너식 몹시구타를하며밥도못먹게하고겨(糠)죽만으로 연명하게하야 굶고도 매만맛는 박순렬은 온몸이항상 피투성이를 면치못하게 되얏다 그러나 구도덕(舊道德)에 억키인 순렬은 한마듸 반항도안하고

눈물조차 마음대로못흘

리고 사람업는곳에서만 눈물과 한숨을지일뿐이엿다남편인상항도역시 부모를 존경한다는 구도덕으로 잘못을잘못이라 못하고 다만애처로 어미업는틈을타서가련한위로를 할뿐이엿다며

마츰 양덕구읍내사는리준배(李俊培)가 리원소식을듯고 리상항이한테가서 그대의안해를 양덕면수암리(水岩里)류상묵(劉尙默)의첩으로 파는것이엇더냐고하얏다 이말을들은 그는 집안이가난하고 무지한 로모의 횡포로

안해고생

시키는것도털련의한이되거든 판난맘니 또부순맘이나고 거절하얏든바 리준배는 또다시시모인 리성녀를차자보고 일백칠십원에 매매하기로하고 그날아츰에 데리러가라하야 그가리되엇것이라는데 순렬은 청련의벽력과가티 곡지통지하며 몸부림을하고 하날을우러러 박명함을부르지젓다 그러나 독사와가튼시모는 어서 가기를 재촉하고 사랑하든남편과 귀여운딸형뎨는 어미의치마에 매여달려

나도간다 고울며불며하

야 오도가도못하는 불상한정경은 이로볼수업섯는데 밉고쇼는 강제에 할수업시울며가는 순렬은 어린딸에게 밥을ㅅ내여주며 『이것이내가주는밥이니 마지막먹어라』하고 눈물어린눈과목메인소리로 남편과딸을 작별하는것은 참으로볼수업서서 그와가티 동리부인들까지 울든것이라더라(양덕)

남의宗土를 賣却타가
발각되야피소

전북익산군 북일면현영리(全北益山郡北一面玄永里)서재성(徐載鉉)씨는 지난사일에 전북옥구군림피면련흥리(全北沃溝郡臨陂面鎭衙里) 문재현(文在鉉)과 익산군익산면 남중리(益山郡益山面南中里)리텰호(李喆鎬)와 리리일출뎡(裡里日出町)림희수(林熙洙)등 삼인을 피고로리리경찰서에 고소하얏다는데 이케 그사실의 내용을드른바에 의하면 원고서재성은 본래무식한사람으로 가세까지 곤난하야지난삼월십오일경에 자긔처남 되는 전긔문재현에게 가옥을 저당하고 돈팔십원만 어더달라하엿더니전긔삼인은이것을 긔회로문 팔십원을 서씨에게준후 서의인장을 위조하야 서씨의가옥과종토(宗土)칠천여평 가격 사천여원어치가 서재성의 명의로잇는것을 전부보존등긔를 내여가지고 아모것도업는 전긔리텰호에게 토디이전수속까지한후 또다시 모일본사람에게 팔고자하다가발각되야 서씨는 즉시 고소를데긔한것이라고하더라(리리)

먼내(面內)국민자륙백이십오호에대하야 대정십오년도 데일긔호세와 호별할부과금구십이원을 부담하얏슴으로 일반은 칭송한다고(공산)

日本人은排斥 朝鮮人은願留
양잠괴를압두고 문뎨되는기술원

전남장성군잠업조합촉탁기술원(全南長城郡蠶業組合囑託技術員)청수직의(淸水直義)를 배척하기위하야 구읍내(邑內) 재류일본인들이 여러가지로 운동을하지하고 여러가지로 진정까지하얏다함은 이미 본보에 보도한바어니와 근자의 장성군의조선인측사회에서는 자못공긔가 험악하여지며 가장긴장하여젓다는데 그내면의 진상에대하야 확실한편의 전하는말을 듯건대 전긔청수는 심상치안흔 인물로서 사긔오기전에 강긔(岡崎)라는자가잇서 일본인양잠가(養蠶家)들을옹호하고 조선사람에게는 조곰도동정이업고도로혀착취를

하여오든 것이폭로되야 장

조선인측의 불평으로인하야 전긔청수가와서 그뒤를니어잠견판매(蠶繭販賣)를하는데 역시일본인들을 위하야동정이만흔반면에조선인의고치에대하야는 등급을 보통급하로삼고 일본인의등급은 보통급을 낫게하여과첨하는모양이뵈인다하야사회의여론이매우고조되중에잇든바그때의각신문지상의보도와사회의 공격을받고서 성명하기를 『나는간견실(乾繭室)의 발동긔를보고 고장이자조생겨서 대개는그곳에

잇게되야

조합평의원이 매고 일본인두사람도 내가다려다가 돈것이아니요 조합장이그사람을 지정하얏슴으로 평동이한것이 그와가티 차별뎍등급을뎡하여젓다』고하며 금번에는 작년 추긔분부터 도모지차별을 부치지안토록 하는동시에 그네들의소위주장하는별구(別口)라는것을취급 하지안코 재작년가지도 삼등짜리가 볼수업는등급이사오등까지게됨으로일본인편은 그를배척하기위하야 백방으로 로력중인데 일반조선인은 이러한 석회하여지는 농촌에서 이러한인물을 보내고 보면나중에오는자는 일본인의

배척하는

세력이만타하야그편을아첨하기위하야조선인양잠가의고치등급을낫치고일본인의 고치등급을 올리여주며별구를또취급하게되면 조선인측으로서도 배척운동이 할수가잇스나 만일그러한 행동이잇는이만큼 경제뎍파멸을 스사로당할것이니 찰하리그대로 잇서주는것이 조타고하며 조합의처치를 주목중이라더라(장성)

日巡査가 婦女毆打
과실장사를

지난오일 오후십일시경에 밤은 깁고 인적은고요한데 평양신창리(新倉里)경관파출소압해서일본인순사가과실(果實)장사하는부녀(婦女)를구타하야당장에혼도케됨까지하야일시소란을이르켯다는데그내용을듯건대전긔부녀는본시평남대동군대보면대평외리(大同郡大寶面大平外里)에서살든리서직(李瑞稷)의안해리서춘(李瑞春)(三一)으로서먹을것입을것이업서서 정든향촌을 떠나얼마전에 평양에들어와서 부내창뎐리(倉田里)미백십사번디에서살면서쇠은부모와

어린자식

을다만하로라도쓰라린생활을면하게하라고평양과실문옥(果實問屋)에서 과실매개를사다가 팔어서 그날의생활을지내여오든중지난오일에도 역시 과실을가지고그전과가티 파출소근처에서팔다가 일본인경부(京府)순사는 도로(道路) 중앙에 과실광주리를 놋무도 노코 잇슴으로 통행하는사람에게 방해가된다고하야 손과와가며 무리한구타를 하엿다는데 그곤궁하엿는순련의원(順天醫院)에입원하야 응급수당을바든결과

생명에는 별로관계가업

다는데 그때현장에서 구경한남반관중은 그일순사의 무리함을 비난한다더라(평양)

移葬하고罰金
몽리사람의고발로

덕천군잠상면서학리(德川郡蠶上面棲鶴里)리문상(李文祥)은 작년십일월 십사일밤에 동면룡상리(龍上里)에잇는조모의유골(祖母遺骨)을 발굴하야 자긔잇는서학리에 이장(移葬)하엿든바 무슨심사인지 그동리에잇는 리윤경(李允卿)이 가고발하야덕천경찰서에서는 묘디규측위반으로 지난달 이십칠일부로서벌금이십원에처하엿다더라(개천)

道路邊에 少婦屍
원인은미상

호남선리리(湖南線裡里)에서서으로 약일뎡가량되는 림피(臨陂) 통로(通路)에는지난륙일오전에 약이십세가량되여 보이는 젊은녀자한명이 죽엇는데리리 공의가 출장검시한바 지난오일밤에 죽은듯하다하며 죽은원인은미상이라더라(리리)

라듸오의威力
漸漸發揚되는 글이나그림을 십분동안에방송

무선뎐신(無線電信)이 한층더 발달되야 문서(文書)와그림도 수초(秒)간에 멀리까지 방송(放送)하는것은 그리이상히 여길것도업는바 뎐신물상(電信物像)은 일천팔백사십삼년에 독이에 벼린(伯林)과『보쓰담』사이에 텰선(鐵線)을 놉이고 처음으로 시험하엿고 그후에는 일천팔백 사십삼년에 영국인『베인』씨의 발명과 다시영국인『베쿠엘』씨의개량으로 되얏섯는데 근년에 『고룬』박사가부천뎐신을리용하야발명한박법은널리세상에알려잇는것과가티기술상(技術上)으로성공한것이나다만방송하는시간이너무오래걸림으로비용이대단히만하저서 실용상으로는 뎍당치못한결뎜이잇섯는데데일천구백 이십사년 륙월이십구일에 등록(登錄)된『라이푸지히』시의『카룰스』씨의 특허(特許)는 한층더진보된것으로 목하사방에서 치메돔-」가량의 글이나혹은 그림은 십분동안에 맘대로 방송하게되얏슴으로 머지아니하야 먼거리에 영화(映畵)가나타나게되리라하며 그리케되면 편지도 싼료금(料金)으로 육필(肉筆)이켜펀쪽(對手方)에 뎐달되리라더라

업는쌀잇다고 남의돈을편취

김포군 군내면북변리(金浦郡郡內面北邊里)권호봉(金浩鳳)의 집에서는 수일전에 그아들의혼인잔치를한다고 수백원을들이여가지고음식과 모든 준비를하야가지고 잔치군만모하노코 신부도업는 헛잔치를한후에 엇던자에게 속은줄을알고 가해자측을걸어 지난삼월에 당디경찰서에 고소를 제긔하얏다는데 이제그내사실을듯건대 전긔 권호봉은 원래생활이 곤궁하야

사방으로 구혼하든중

... 그와가티

후에전긔신랑집에서는 모든준비를하여가지고 잔치날을당하야 신부오기만 기다리다가 종일헛물만켜고 그후사실을알아본즉 권긔로정준이라는자는 원래부터 불량한자로서 금전을 편취하기위하야그와가튼교묘한수단으로전긔씨의금전을 사긔한것이라는데

印度靑年一名 沙里院에到着
본보지국에서환영

사리원(沙里院)에도자전거두바퀴에다가몸을싯고세계를일주하려는인도청년 ... 씨가왓다간지가 얼마되지 안하야 또광군의 뒤를쫏차 역시세계일주의 목뎍을가지고 자전거에몸을의지하야 수륙삼만리를 답파하고 조선까지드려온 인도청년 하―얌군은 지난오일오후 ... 사리원에도착하야 본사사리원지국의 안내로 ... 양료리옥에서 만찬을 함께하고 ...

獸肉商을毆打
언약한것을위반하얏다고막따려

충북영동읍내(忠北永同邑內)에서는 매일평균소한머리 가량의 고기는매매가되든중고기갑사닭에지금은오일간에한두머리에지내지못함으로 원반시민은심히 곤난하든중시내유식(有識)하는 김광쇠의 처 권팽(金光釗妻權光)(三五)은 영동군매천리(梅川里)에사는 수육상리춘만의 처 박정성(李春萬妻朴占成)(三〇)을 자긔집에다가불러 노코가지고온 거울네로함부로따림으로박정성은압흠을참지못하야밧그로도망하여나옴에도 불구하고 권팽은 길가까지 쫏차나와서 박정성의 머리털을 감아잡고 쌈을이르키리따림으로 박정성은 저우몸을 빼여 두손으로 자긔가삼을치며 대성통곡을 하면서 자긔집으로 도라갓다는데 그원인은 전긔권광이가 그전날고기를 갓다달라고부탁한것인데 언약한것을 위반하고 다른집에 고기를모다팔엇다고 그와가티 구타한것이라더라(영동)

◇列車一時停車 륙일

오후다섯시경에경원선(京元線) 룡산(龍山)서빙고(西氷庫)간을 데일백십칠호렬차가 진행하든중 젊은녀자두명이 선로가운데를통행하면서 여러번난긔적소리에도 드른체하지안흠으로 동렬차의긔관수는 곳뎡거를시키고두녀자를잡어다가 서빙고역장에게 인도하엿다고

音樂科를設置

종로중앙긔독교청년회에서는음악과(音樂科)를새로히설립하고 음악의 민중뎍장려와 보급을위하야『피아노』『올갠』『바욜린』라팔(喇叭)등으로반을난호아교수할터이라는데 입회금이일원 수업료매삭삼원이오기타상세는동회로 문의하야조켓다하며 서적출간과 음악회를뎡긔로 개최하는등사업도행한다고

스터핀氏의 첼로獨奏會
구일밤공회당에서

『첼로』의 세계뎍명인인 로서아 경성『쓰게이스터핀』씨가 입경데재중이라함은 긔보한바어니와 경성음악동호회(京城音樂同好會)주최로 씨의『첼로』독주회를 오는구일오후 팔시부터장곡천뎡 공회당(公會堂)에서열린이라는데 당야의 순서는 『녹턴네』와『쒜레네이드』『아름다운로스마린』등의십수종인바 그중에는 한층로뜻는것도잇서 한이채를 이루울터이라하며 입장료는보통이원 학생일원이라고

姑婦不和로 少婦가飮毒
생명에는관계업다

김포군검단면원당리(金浦郡黔丹面元堂里)김종익(金鍾翼)씨의 며느리 김복순(金福順)(一八)은 지난이일오전열두시경에 자긔집에서 양잿물을마시고 죽으려하는것을 그집가족들이 발견하고 즉시응급치료를하엿슴으로 생명에는 관계가업스나 탐문한바에 의하면고부(姑婦)간불화로그와가티자살하라든것이라더라(김포)

安城에染病 사망자도잇다

요사이 경긔도안성읍내에서는 장질부사가 발생되야 사망자까지여럿이 잇슴으로 당디경찰서에서는 일반에청결을 매우주의식히는중이며 이에대하야 공의 박종환(朴宗桓)씨는말하되될수잇는대로 음식물을주의하며 또는거처범절을 깨끗하게 하는것이조켓다고하더라(안성)

굴뚝으로들어가 구들뚤은도적
범행후종적묘연

지난사일밤중에 안성군읍내면장긔리(安城郡邑內面場基里)일백십팔번디림의상(林宜相)상뎜침방(寢房)아궁이로부터구들을뚤코 도적이들어와서 그곳에잇든 돈륙원가량을훔쳐가지고그이웃집인 중국인왕수산(中國人王壽山)상뎜에가서 그집창문을뚤라가 다려낫슴으로안성서(安城署)에서는 범인을수색중이라더라(안성)

各團體消息

◇尙洞敎會傳道第五日 팔일오후일곱시반부터 부내남대문안 상동례배당에서 아래와가튼 연데와 연사로 전도
萬物救의眞髓 金水燮

휘파람

▲울산군하상면서리(蔚山郡下廂面西里)어떤집 녀일이를본이아이들의 박모는 자긔아들금이를데려서 외편다리가 부러서는원에서차료중이라한다▲원인은그아이가장난하는일이만하서 버릇가리친다든것이잘못하면쳔독바리가될모양이라고 한다▲뒤자식처가떠린데누가무엇이라하겟느냐는생각을가젓스리라마는일반이말할수잇는것까지도좀알어야한다

호시
力의泉……
美味와 滋養을 兼全함
ホシホートワイン
一瓶 一圓二十錢
약은 『호시』
星製藥株式會社
포도주